허위 유인물 유권자들에 배포 혐의
장성경찰, 민주당 선거운동원 조사

장성경찰은 30일 선거관리위원회 명의로 제작된 허위 유인물을 유권자들에게 배포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민주당 선거운동원 김모(여·52)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9일 오후 6시께 장성군 북이면 일대에서 '무소속 유두석 군수 후보의 후보자 등록 무효가 결정됐다'는 내용을 담은 문서 23매를 주민들에게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가 배포한 문서는 A4 용지 1장 분량으로 선거관리위원회 직인 없이 후보자 등록이 무효임을 알리는 내용이며, 장성선거관리위원회가 당적 논란이 일었던 유 후보의 무효 결정에 대비해 내부용으로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장성 선관위는 당적 보유로 논란이 일었던 무소속 유두석 장성군수 후보에 대한 선관위 표결을 통해 '등록무효 결의안'을 부결했다. /장성=고재빈기자 jbgo@kwangju.co.kr

공사현장 골재 빼돌려 판매
완도해경, 30대 등 2명 체포

완도 해양경찰은 30일 공사 현장에서 채취한 원석(골재)을 몰래 빼돌려 판매한 혐의(업무상횡령)로 골재 채취업체 N교역 대표 윤모(39)씨 등 2명을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4일부터 14일까지 해남군 삼산면~북평면간 국도 확·포장공사 현장에서 나온 원석 3천800㎥를 몰래 빼돌린 뒤, 이를 완도항 방파제 공사를 하는 업체 3곳에 5천만원을 받고 팔아 넘긴 혐의다.

해경은 공사업체와의 공모 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윤씨 등이 불법 반출한 원석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완도=정은조기자 ejchung@kwangju.co.kr

"KBS 사장 판공비 공개하라"

서울행정법원 판결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민중기 부장판사)는 C변호사가 "KBS 사장 및 일부 임원들의 업무 추진비와 접대성 경비 집행서류 일체를 공개해 달라"며 한국방송공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공개돼야 할 영업상의 비밀이란 상당기간 비밀로 유지·관리되면서 영업 활동에 유용한 경영상 정보를 말하나 원고가 구하는 정보는 비밀에 해당된다거나 공개시 피고측의 이익을 현저히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C변호사는 지난해 11월 KBS 사장과 부사장, 정책기획센터장 등 임원진 5명의 월정 부서 활동비(업무추진비)와 접대성 경비의 건별 집행서류 일체를 공개해 달라고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KBS측이 거절하자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 전남 최소 선거구 여수 사도의 5·31

전남의 투표구 중 선거인이 가장 적은 여수시 화정면 사도 주민들이 투표소인 전남대 여수캠퍼스 수련원에서 30일 "모두 투표에 참여하자"며 서로에게 약속하고 있다. /여수=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배·리어카 타고 100% 투표장으로

유권자 43명…주민들 수송 등 역할분담
육지 거주 자녀 9명 '효도+투표' 귀향

섬마을 주민들이 투표율 100%에 도전한다. 전남의 881개 투표구 중 선거인 수가 가장 적은 여수시 화정면 제10투표구 사도(沙島)와 추도(鰍島) 주민 43명은 31일 전원 투표에 나선다.

섬에 거주하는 50세 이상의 노인 34명은 물론 육지에 살고 있는 젊은이 9명도 이날 모두 섬으로 들어와 귀중한 한 표를 행사한다.

주민들은 도지사 후보 4명, 시장 후보 4명, 도의원 후보 2명, 시의회 후보 9명 등 19명 중에서 6명을 뽑아야 한다. 주민들은 선거벽보를 보면서 사도리 사무소와 점포 등에 모여 누가 '참된 일꾼'인지 논쟁을 벌였다.

"○○당 후보가 우리 섬에 다리를 놓아준댔잖아. 이 사람 뽑아야지." "아따~ ××당 후보는 우리 마을을 관광특화 섬으로 발전시켜 준댔당께."

선거기간 내내 갑론을박(甲論乙駁)하던 주민들은 한 가지만은 지키자고 다짐했다. "서로 지지후보가 다르더라도 투표만은 꼭 하자"는데 의견을 모은 것이다.

각자 역할도 분담했다. 사도 이장 김장수(56)씨는 선거날 오전 10시에 자신의 '민들레'호(3t)를 띄워 800m 떨어진 추도로 가 사람들을 싣고 올 계획이다. 투표소가 사도의 전남대 여수캠퍼스 수련원에 설치돼 있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주소지가 사도로 돼 있지만 육지에 나가 사는 자식들을 제각기 맡아 일일이 전화를 걸어 꼭 섬에 들어와 투표하라고 당부하고 있다. "부모 얼굴도 보고 '소중한 한 표'도 행사하고, 일석이조 아니냐"고 설득했다. 혹 자식들이 부재자 투표를 했다고 거짓말할까봐, 직접 와서 하라고 당부했다. 자식들은 부모의 뜻에 따라 새벽 6시 여수항을 출항하는 첫 여객선(백조호·24t)을 타고 뱃길로 1시간20분 걸리는 고향에 오기로 약속했다.

아흔이 넘는 노인들도 선거에 빠지지 않는다. 걷는 것이 힘들 정도로 몸이 불편한 김윤매(여·91)·김공엽(여·90) 할머니의 투표는 며느리들이 거들기로 했다. 리어카에 시어머니를 태워 투표소로 가기로 한 것이다.

주민 김양심(여·50)씨는 "육지의 젊은 사람들은 선거를 기피한다고 들었는데 선거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보고 이번 선거에 적극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여수=강성훈기자 kangsw@
/임주형기자 jhlim@kwangju.co.kr

"후보자 충분히 조사…약간 떨리네요"

19세 첫 투표권
전남대 김지화씨

"첫 투표라 약간 떨려요"

전남대학교 김지화(여·19·생명과학 기술학부 2년)씨는 이번 5·31 지방선거에서 첫 투표권을 행사하게 된다.

선거구는 '광주시 서구 화정2동'으로, 광덕고등학교에서 투표를 한다.

김씨는 "6명의 후보를 한꺼번에 뽑으려니 어렵다"며 "이미 후보자에 대한 조사는 다 끝냈다. 투표도 빠뜨리지 않고 꼭 하겠다"고 귀띔했다.

그녀는 광주 경제를 살릴 사람에게 투표한다는 각오다.

또 "정당의 이미지나 영향력을 생각하면서 후보자의 경력·공약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투표하겠다"고 야무지게 말했다.

/이승배기자 lsb54@kwangju.co.kr

"한국 정착 3대만에 소중한 한 표 행사"

외국인 첫 투표권
화교 3세 랭창준씨

"심사숙고해서 적절한 일꾼을 뽑겠습니다"

화교 3세인 랭창준(冷長俊·36·광주화교 소학교 교사)씨는 난생처음 투표하게 됐다며 흥분된 표정이었다.

랭씨 가족은 할아버지가 지난 1940년 광주에 정착한 뒤 3대째 한국에서 살고 있다.

그는 "한국 젊은이들은 투표권이 소중한 권리인지를 잘 모르는 것 같다"면서 "우리 지역인 광주시 북구 문흥동을 잘 가꿀 일꾼에게 한 표를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주권 취득 3년 이상 된 외국인에게 선거권을 부여한 개정 선거법에 따라 이번 선거에 투표 하는 광주의 외국인은 102명. 모두 대만 국적의 화교다.

/임주형기자 jhlim@kwangju.co.kr

나원참 〈6842〉 김종두

PC방 업주·손님 등 5명 검거

광주 광산경찰은 29일 PC방 컴퓨터에 고스톱 등 도박 프로그램인 '조아조아'을 설치, 손님들에게 현금을 받고 사이버머니 등을 제공한 혐의(도박 개장 등)로 J게임방 업주 김모(32)씨와 손님 정모(37)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임주형기자 jhlim@kwangju.co.kr

시각장애 안마사 4명 한강 투신뒤 구조

쌍나팔

○…대한안마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경기지부 소속 시각장애 안마사 4명이 30일 오후 5시40분께 서울 마포대교에서 15m 아래 한강으로 투신.

○…이들은 그러나 한강에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대기 중이던 순찰정에 곧바로 구조.

○…시각장애인 안마사 10여명은 지난 29일 오후 3시부터 마포대교에서 헌법재판소를 규탄하는 고공시위를 벌여왔는데, 경찰은 나머지 장애인들이 다리와 교각사이 이동통로에서 다리 위로 올라오도록 설득. /연합뉴스